

정책네트워크 **내일** 보도자료

보도일시: 배포시

문 의: 『정책네트워크 내일』

02-704-0518 / 010-4789-7485(홍석빈) / www.policynetwork.or.kr

정책네트워크 내일-충청지역포럼 공동기획 세미나

■ 『정책네트워크 내일』과 『충청지역포럼』이 공동으로 지역발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. 이하 관련 내용을 토대로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.

- 주제: 【한국 사회 구조개혁과 충청권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】
- 일시: 2013년 7월 5일 오후 3시
- 장소: 평송 청소년수련원
- 주최: 정책네트워크 내일/대전내일포럼/국회의원 안철수

■ 세미나 기조발제 요지

- 주제: 『새정치와 지역의 정치개혁』, 유진숙 교수(배재대 정치언론학과)
- 토론: 양혜림 교수(충남대 철학과), 정세은 교수(충남대 경제학과),

이벽규 상임이사(거버너스센터), 김제선 상임이사(대전 풀뿌리사람들), 정연기 공동대표(충남내일포럼), 은경민 공동대표(충북내일포럼)

주제발표 요지:

- 한국 정당체제는 위기와 변화의 요구에 당면하고 있으며 그 핵심에는 일명 ‘안철수 현상’이 자리잡고 있음. 최근 한국 사회에는 다양한 균열구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기존 ‘지역’구도의 균열 외 ‘이념’, ‘세대’ 및 ‘계급·계층’의 균열구조가 등장하고 있음에 주목을 요함.
- 사회균열구조란, 계급, 세대 등 다양한 사회적 갈등구조를 의미하며 한국사회의 최근 균열구조는 첫째, 지역균열구조의 약화 둘째, 균열구조의 다양화(▲이념균열 현상-일베와 종편의 광주민주화항쟁 역사왜곡, 반공주의 강화, 좌우 NGO간 충돌 ▲ 세대균열 현상-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나타난 세대간 투표행태 차이와 각종 정책에 대한 세대의 선호차이) 셋째, 탈물질주의적 균열현상(청년, 여성, 평화, 핵, 자유, 인권, 개인화 등)임.
- 소위 안철수 현상은 사회전반의 균열구조가 아직 정당체제로 ‘이전(translation)’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치가 이를 담아내지 못한 데 대한 새로운 요구 즉 ‘새정치’에 대한 요구에서 촉발된 것으로 해석됨. ‘새정치’의 바람직한 방향성은 ▲ 탈지역주의 ▲ 사회 각 계급계층의 이해관계를 수용해 내는 명확한 이념적 정체성 확립 ▲ 탈물질주의 가치 수용에서 찾을 수 있음.

- 충청지역의 정치지형은 ▲ 선거 영역에 따라 다른 정당을 선택하는 분할투표 성향 ▲ 영호남에 비해 유동적인 지역당 지지율 ▲ 정당지지도의 유동성이 보여주는 실용주의적 성격이 강함. 충청의 실용적지역주의는 지역정치인들의 당적변경이 잦은 현상 등 정당제도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향후 지역보다 이념을 중심으로 한 정치지형 변화가 필요한 상황
- 충청지역에서 진보진영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'지역이익'의 대표가 중요하며 이는 수도권-비수도권 간 균형발전, 다양한 사회적 약자집단의 이익대표성을 반영한 새로운 지역정치지형 형성이 필요
- 안철수 현상과 새정치 논란은 한국 민주주의 방향과 발전이라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며, 정치불신과 반(反)정치 현상 등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한국 민주주의의 전환기적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풍향계가 될 것임.

★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따뜻한 변화! 정책네트워크 내일을 후원해 주십시오.
홈페이지(www.policynetwork.or.kr)에서 '후원하기'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.

정책네트워크 내일

(우) 121-715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성우빌딩 707호

<http://www.policynetwork.or.kr> · 02-704-0518 · 010-4789-7485